

**공동체 소식**

**■ 목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목주기도를 매일 바쳐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기억합시다.

**■ 낙태 반대 서명운동**

- 본당입구 게시판에 준비된 카드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주시면 모아서 발송합니다.

**■ 교무금 안내**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한 달분 교무금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 미사안내**

- 10월 30일(수) 평일미사 없습니다.(홀리트리니티 할로윈 행사 협조)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부모, 친지, 은인)을 위해 미사 봉헌하시고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11월 2일(토) 오전10시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미사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제대 앞을 지나갈때는 깊은 절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459	37	164	68
차 주	49	210	155	436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로마노)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차 주	김대연(요셉)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차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지안(요한) 김정훈(로베르또)

**■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라파엘), 차상욱(펠릭스)
차 주	

**■ 애찬 봉사자**

금 주	8조: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차 주	9조: 김시연, 김명희, 윤지선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11월 3일: 3구역)**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 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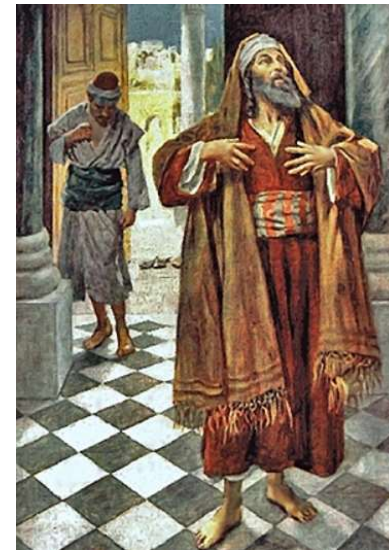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이들의 기도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오르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누우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만을 믿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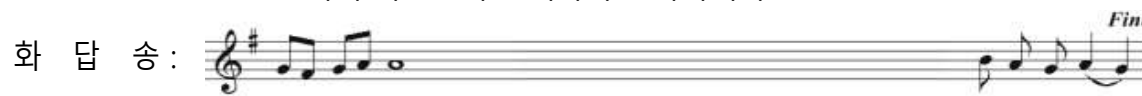
**그림 묵상**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루카 18, 11-13

제 1 독 서 : 집회서 35,15L-17.20-22L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짓값을 벗으리라. ◎

제 2 독 서 : 티모테오 2서 4,6-8.16-18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8,9-14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 생명의 말씀

## 하느님의 심판



오늘의 첫째 독서에서 집회서의 저자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은 차별하지 않는 '심판자'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느님이 가난한 이와 고아와 과부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집회 35장뿐 아니라 구약 전반에 걸쳐 하느님은 약자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며, 구약의 율법은 바로 그 점을 하느님의 거룩함과 연결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행해지는 불의와 폭력에 침묵하던 이스라엘의 제물에 하느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예언자들은 반복하여 경고합니다.

둘째 독서인 2티모 4장에서 바오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봉헌으로 이해합니다. 지혜서의 저자처럼 바오로 역시 하느님을 심판관으로 알아듣습니다. 바오로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세속적 재판의 상황에서 아무도 그를 거들어 주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저버렸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희망과 기쁨에 대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의로움의 화관'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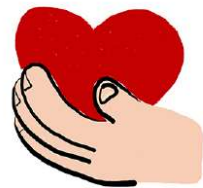
복음 루카 18장은 어느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대비시켜 전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는 바리사이의 감사 기도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실지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아마도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와 세리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실제로 대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었고, 바리사이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에 가장 충실한 이들이었기에 당연히 가장 의로운(!)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자만과 타인을 향한 우월감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사가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지녀야 할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오늘날 몇몇 윤리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서로 다른 장소가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 나라란 모든 이가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곳이며,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곳인데, 많은 이들에게 그곳은 더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한 나라이겠지만, 특권과 혜택이라

는 우월함을 누리기 위해 돈과 권력을 쫓던 이들에게는 건디기 힘든 곳일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가 곧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연습하며,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를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눈만 맞추지 말고  
마음을 맞추어야지.

눈이야 이리저리 다른 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마음을 맞추면 한 곳만 바라보게 되지.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루카 18,13)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간절함

제가 되는 순간까지 같이 가는 동반자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바로 늘 제 옆을 지키는 나무 목주와 실 매듭 목주입니다. 아주 오래 함께 살아와서 조금은 닳아있는 이 목주 두 개는 제 살붙이나 같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구슬과 유리, 옥으로 만든 예쁘고 화려한 목주를 선물 받았지만, 전 저와 함께 영원히 재가 될 수 있는 이 두 개의 목주로 늘 기도합니다. 영원한 친구이며 동반자입니다.

며칠 전 어느 지인이 '나는 내 마음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때때로 공정한 도덕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따를 수 없는 갈등에서 저를 지켜 주는 힘이 바로 목주입니다.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본심의 갈등 속에서 시가 태어나기도 하지만, 끝까지 절 바르게 살게 하고 지켜 주는 것은 목주입니다. 전 공정한 관찰자를 가슴에 지닌 이성적 인간이 못됩니다. 바람의 사춘쯤으로 태어났는지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저를 믿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성당에서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시집을 열 권 이상 세상에 내어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위선이 왜 없겠습니까. 비신자보다 요상하게 자기 진심을 가리며 분별력의 웃음으로 위선을 날리지만, 제 기도가 길어지는 일, 제 침묵이 길어지는 일은 늘 반성 안에서 '내 탓이요'를 잘게 잘게 씹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성모님이 새겨진 목주를 들고 앉으면 '이미 다 아는 사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없는 거리의 버팀목이라 마음속이 짝 차고 하염없이 행복합니다. 그런 동반자이기에 저

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드린 말씀대로 '거리 없는 거리의 동반자'가 제 안에 있는데도 본능적인 공포는 멈추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저는 새벽 두 시쯤 캄캄한 창을 내려다보며 허공을 딛고 선 두려움이 솟구칩니다. 목주 두 개로는 부족한 듯 이 세상 목주를 모두 어깨에 메고 절룩이며 남산에라도 올라야 할까요. 아무리 온몸에 목주를 메도 예수님의 십자가 한 조각도 따르지 못하면서 목주 찬양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닌지 다시 부끄러워집니다. 특히 스스로 삶의 여정이 순탄치 못하다고 '왜 저에게?'라고 억지를 부려 보기도 하지만 누군들 가슴에 폭탄이 없겠습니까. 고요히 소리 없는 폭탄을 성심으로 누르느라 홀로 목주를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생각하면 참 많은 행운을 선물 받았습시다.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슴에 성호를 긁습니다. 어둠도 공포도 주님이 다 아시는 삶의 한 조각이라 생각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더 낮아지려 합니다. 부족한 저는 단 한마디 '간절함'으로 살려 합니다. '간절함'이 제 자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성수 한 모금이라도 오늘 다시 제 마른 입술을 축이려고 이른 새벽 성당 갈 채비를 합니다.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 복음묵상

